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영인

국문초록

#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영인

본 논문은 성인 정신건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발현성인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성인 정신건강 출발점으로서 발현성인기의 중요성을 확인해보는 것에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선진산업국가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 사이에 있는 청년들이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고 정의하고 있다. 발현성인기의 정신건강 문제가 주목받음에 따라, 이 시기의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논의와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발현성인기의 정신건강과 발달과업 문제는 점성적 발달 원칙에 따라 이후 생애의 정신건강과 발달과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이 시기의 발달과업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발달과업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한 연구와 사회복지학적 개입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

히 진행된 바가 있으나 이 역시 한국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현성인기 청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발달과업과 성인기 초기 발달과업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실증연구 기반의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발달이론을 토대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이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간 영향력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의 7차년도(2016) 자료를 활용하였고, 7차년도에 해당하는 발현성인기 청년 1,68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독립표본 t-test와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아정체감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영향력에서 성별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성별과 관계없이 자아정체감이 친밀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의 발달과업 간 연관성을 증명하고, 발현성인기 청년에게 성별과 관계없이 Erikson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발현성인기 청년들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책으로서의 자아정체감 형성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데이터의 부족으로 Erikson이 정의한 발달과업 중 친밀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미흡한 점, 데이터를 중단분석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을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로맨틱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감’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통하여 Erikson이 정의한 친밀감을 전반적으로 다룰 것을 제언한다. 또한, 발현성인기의 연령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종단연구를 통해 실증적 분석을 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발현성인기,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발달과업, 자아정  
체감, 친밀감, MANCOVA, 다변량공분산분석

학번 : 2017-23183

# 목 차

<b>제 1 장 서론</b>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목적 .....	11
제 3 절 연구문제 .....	13
<b>제 2 장 이론적 배경</b> .....	14
제 1 절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자아정체감 .....	14
1.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	14
2. 자아정체감(identity) .....	16
제 2 절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친밀감 .....	20
1. 친밀감(intimacy) .....	20
2. 친밀감(intimacy)과 애착(attachment)의 이론적 관계 .....	22
제 3 절 점성적 발달 원칙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의 관계 .....	26
1. 점성적 발달 원칙(epigenetic principle) .....	26
2. 자아정체감이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병리학적·임상적 영향 ·	27

제 4 절	성별과 발현성인기 발달과업 성취의 단계 .....	31
1.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의 성차 .....	31
2.	자아정체감 형성이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는 성차 .....	32
제 5 절	통제변수 .....	35
<b>제 3 장</b>	<b>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b>	<b>36</b>
제 1 절	연구가설 .....	36
제 2 절	연구모형 .....	38
<b>제 4 장</b>	<b>연구방법 .....</b>	<b>40</b>
제 1 절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	40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43
1.	독립변수: 자아정체감 .....	43
2.	종속변수: 친밀감 .....	45
3.	조절변수: 성별 .....	47
4.	통제변수 .....	47
제 3 절	분석방법 .....	49

<b>제 5 장 연구결과</b>	<b>51</b>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51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56
제 3 절 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58
1.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	59
2.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정도가 친밀감 형성에 주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가?	60
 <b>제 6 장 논의 및 결론</b>	 <b>64</b>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64
제 2 절 연구의 함의	68
1. 이론적 함의	69
2. 실천적 함의	70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77
1. 연구의 한계	77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79
제 4 절 결론	81



참 고 문 헌 .....	83
부 록 .....	91
Zusammenfassung .....	94

## 표 목 차

<표 1>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의 8단계와 심리사회적 위기발현 시기 .....	15
<표 2> Holmes가 주장한 생애 별 애착유형의 발전 단계 .....	24
<표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중1패널 조사 데이터 구축 현황 .....	41
<표 4> 송현옥(2008)의 자아정체감 원 척도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척도 대조표 .....	43
<표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인용한 황미경(2010)의 또래애착 원 척도 .....	46
<표 6> 분석에 활용된 독립, 종속, 조절, 통제변수 .....	48
<표 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	51
<표 8> 성별에 따른 독립 및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	52
<표 9> 종속변수의 집단 별 기술통계량 .....	54
<표 10> Pearson의 상관관계에 따른 변수 간 상관관계 .....	57
<표 11>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MANCOVA 모수추정치 .....	58

<표 12>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의 각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59
<표 13> 성별에 따른 친밀감 형성의 차이 .....	61
<표 14>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와 성별의 상호작용 .....	62
<표 15> 3차년도와 7차년도 변수를 이용한 MANCOVA 분석의 모수추정치 .....	92

##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38
<그림 2> Jones & McEwen(2000)의 Model of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	71
<그림 3> 3차년도와 7차년도의 발달과업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	91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미국의 심리학자 Hall은 청소년기를 18세기 후반 독일의 문학운동 ‘질풍노도의 시기(Strum und Drang)’에 비유하였다(Hall, 1904: 73-75). 질풍노도의 시기란 구시대적 권위에 대한 반항과 감정의 지배, 충동으로 설명되는 시기를 말한다(서석연, 1988). 청소년기에는 현실에 적응하고자 정체감(Self-identity)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불안정과 충동, 반항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비유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윤경희, 이숙, 2016).

최근 매체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정과 충동, 반항을 ‘중2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곤 한다. 중2병이란 1999년 일본 배우 이주인 이카루가 일본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中二病’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한국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명희, 2013). 중2병은 학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실제 진단이 가능한 질병은 아니다. 학계에서 중2병은 스트레스, 특히 학업 스트레스와 성취 압박, 억압적인 교육 풍토 등으로 인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청소년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권재원, 2015),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한다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와 같은 급진적이고 단절적 성향을 가진 병리적 현상(김성운, 2014)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발달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나가면서 발생하는 정서적 불안과 충동, 반항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중2병이 대학생들에게 ‘대2병’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2병은 자신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다는 점에서 중2병과 유사하다. 대2병 역시 중2병과 마찬가지로 학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실제 진단이 가능한 질병은 아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2병은 취업과 장래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어 우울감에 빠지는 현상(선민영, 2018), 대학 진학 후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실존적 고민뿐만 아니라 진로, 취업 등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증세(오인수, 손지향, 조유경, 2018)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에 자아를 탐색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충분히 고찰해볼 수 있는 시간 없이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대학 진학 후 취업난 등의 사회적 현상을 경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오인수, 손지향, 조유경, 2018). 대학생들이 자아정체감에 혼란을 경험하는 대2병 현상은 학적 변동과 관련한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의 2015년 학적 변동 대학생 조사에 따르면, 전국 153개 4년제 대학 대학생 중 38,523명이 자퇴하였고 12,179명이 전과하였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의 자퇴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퇴생 분포는 의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고루 나타났다. 이는 전공과 관련 없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안민석 의원실, 2016). 또한, 자신의 자아와 진로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시 환경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2병’ 현상은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청년층 전체의 문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자아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힘든 입시 중심의 한국 교육이라는 환경적 요소 외에도, 현재 한국 사회에는 경제 불황의 장기화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인 부담 증가와 같은 불안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불안요소들은 청년들의 도전 욕구를 상실시키는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연시키기도 한다(정수남, 권영인, 박진, 은기수, 2012; Furlong & Cartmel, 1999: 58-60).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독립된

개체로의 성장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Fussell, Gauthier & Evans, 2007).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으나 독립된 사회 구성원 개체로서의 자아정체성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을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는 용어로 논의하고 있다(Arnett, 2000). 발현성인기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회 속의 자아를 찾기 위한 청년들의 방향이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란 발달단계 상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발현성인기는 결혼 연령의 증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상황의 변화, 고학력자의 증가,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와 같은 사회변화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사회 적응, 진로 선택 등에 있어서 독립적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된 청소년기(extended adolesc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청소년기와 차이가 크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가 기존의 전통적인 세대에 비해 부여되는 성인의 지위(예: 결혼, 출산 등)로 전환을 하였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성인기 초기(young adulthoo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발현성인기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Arnett, 2000: 1-8). 통상적으로 이 시기는 미국을 기준으로, 중등교육이 끝나는 18세부터 고등교육을 마치는 25세를 의미한다. Arnett(2000: 7)은 그러나 25세에 갑자기 성인의 지위를 마법처럼 한 순간에 획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을 하여 경제적 독립이 완료되는 시기인 30세까지로 발현성인기의 연령을 연장하여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Arnett은 통상적인 선진산업국가에서는 18세부터 최대 30세까지를 발현성인기로 보나, 각 국가 별 경제상황, 문화적 맥락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rnett(2000: 9)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다섯 가지로 보았다. 첫 번

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찾는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s), 두 번째는 사랑과 일자리, 거주에서의 불안정성(instability), 세 번째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기중심성(Self-focus), 네 번째는 청소년도 성인도 아닌 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이에 있음 인식하기(feeling in-between), 다섯 번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가능성과 낙관주의(possibilities/optimism)이다.

한편, 우리나라 발현성인기 청년들에게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 위축 현상이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OECD Better Life Index (BLI)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지지 네트워크의 질을 측정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78.4%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OECD, 2017). 이는 OECD 평균인 89%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40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40위에 해당한다. 이 중 2~30대 청년들의 사회적지지 네트워크가 위축되는 현상은 ‘나홀로족’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서도 두드러진다. ‘나홀로족’이란 타인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여가생활을 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조아현, 장선우, 김남명, 임소연, 스키 마오, 2018). 2~30대 성인 남녀 1,593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나홀로족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2.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이정국, 2016). 실제로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혼밥(혼자 밥 먹기)이나 혼술(혼자 술 먹기)과 같은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경제적 압박, 고물가, 불안정한 고용상황 등으로 인해 N포세대로 정의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N포세대란 삼포(三抛: 연애, 결혼, 출산), 오포(五抛: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칠포(七抛: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희망 혹은 취미, 인간관계), N포는 칠포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의미한다(서연주, 2019). 위와 같은 한국의 N포세대 현상과 사회적 관계 위축은 혼자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른바 미국의 ‘Bowling alone’ 현상과 유사하다(Putnam,

2000).

Erikson이 1950년대에 자아정체감(ego-identity)에 대해 논한 이후, 발달 과업으로서의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두 개념 간의 관계, 그리고 두 개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Erikson, 1956). Erikson은 자아정체감을 개인의 연속성, 단일성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사이의 불일치에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자기의식 형태가 나타날 때를 자아정체감 혼란(identity confusion)이라 설명하였다(Erikson, 1968: 183-184). 자아정체감과 대상관계를 설명하는 Erikson의 이론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자아정체감이 적절히 확립되어 있는 사람 사이의 건강한 상호성을 통해 생산적으로 유지된다(박아청, 1990). 즉, 자아정체감이 적절히 형성된 사람 간의 대인관계는 독립된 한 개체로서의 ‘나’와 독립된 다른 개체로서의 ‘타인’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의 불완전한 사람의 자아, 즉 자아정체감이 불명확한 ‘나’는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개체가 아닌 갈등하고 분열한 자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명확하고 분열한 자아상인 ‘나’는 ‘타인’을 불안정한 모습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상관계의 측면에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음대로 이해해버리는 등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박아청, 1990).

이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말하는 점성적 발달 원칙(epigenetic principle)에 근거하여, 청소년기에 형성했어야 할 자아정체감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다음 단계의 발달 과업인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고립감을 경험하는 현상의 원리가 된다(Erikson, 1968: 92-94). 나아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성인기에 겪는 자아정체감 혼란과 고립감은 이후의 발달과업인 생산성과 통합성을 성취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발달 상 과도기의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 발현성인기 청년들이 겪는 자아정체감의 혼란은 Erik Erikson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sup>1)</sup>의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문제는 앞서 언급한 점성적 발달 원칙에 근거하여 이후 생애의 발달 과업 성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발현성인기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관계 위축이나 대인관계 형성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과 사회적지지 네트워크 축소 현상이 앞서 언급한 Erikson의 이론에 근거하여, 발현성인기 청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지지 네트워크 축소나 친밀감,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은 단순히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은 청년의 정신건강에도 우울 등과 같은 형태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지경, 이운주, 이민정, 2018: 118-1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진료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0대의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10.2%로 가장 높았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감률은 9.4%로 나타나 80세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 본 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20대에서 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울에피소드와 기타불안장애가 20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또한 2015년의 의료통계정보(Medical treatment statistics data,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대 초반(20~24세) 우울증 관련 진료 환자 수가 2011년 22,260명에서

---

1) Erikson은 친밀감을 크게 포대(혹은 동료, 영어에서의 peer)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 이후 발달하게 되는 로맨틱한 파트너 관계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결혼 연령의 증가 추세로 미루어보아,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 청년의 친밀감을 로맨틱한 파트너 관계보다 선행되는 친구, 동료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친밀감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015년 27,64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에 비해 약 24.2%가 증가한 수치이다. 20대 초반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대학 내 상담센터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또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심지어 최대한 학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아, 2014). 이러한 자료들로 미루어보아,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 위축,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의 질적 악화 현상이 청년들의 정신건강 악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역할과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 등을 경험한다고 한 Erikson(1968)의 주장이 한국의 발현성인기 청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 패턴, 친밀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는 Erikson의 이론에 근거하여 상당수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들이 주로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이현지, 김명희, 2007). 대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지위 간의 상관을 분석한 박아청(1994)의 연구가 있었으나, Marcia의 자아정체감 지위 분석 척도가 문화적 맥락, 민족의 특징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유동적인 특성을 가진 자아정체감을 한 차례의 면접을 통해 그 지위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제기되었다는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앞선 박아청(1994)의 선행연구에서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에도 주목하였다. 성차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미국에서는 Erikson이 자신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에서 제기한 성차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Erikson(1968: 261-294)은 자신의 저서에서, 발달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발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는 남성 중심적

으로 진행되고 발전된 것들이므로 여성발달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Erikson의 주장이었다. 그러므로 여성의 개인 내적 요소와 생물학적, 사회학적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에서 성차가 드러날 것이며 발달에 있어서도 성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Erikson, 1964).

이처럼 Erikson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였으나(Erikson, 1964: 604), Erikson의 발달이론으로 여성의 발달을 명확하게 설명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후속 연구들의 지적이 있었다(박아청, 2010; Hodgson & Fisfer, 1979). 이에 대해 Hodgson & Fisfer(1979)은 남성 청소년은 전통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반면, 여성 청소년은 누구와 자신의 삶을 공유할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삶을 공유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성 청소년의 발달이 남성 청소년의 발달과 다를 것이라는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

Erikson이 제기했던 여성발달에 관한 의문에 대해, Hodgson & Fisfer(1979)의 연구에 이어 미국의 심리학자 Gilligan은 자신의 발달이론과 실증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발달에서 성차가 발생함을 검증하였고, 이는 앞서 말한 Hodgson & Fisfer(1979)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Gilligan, 1982a). 이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여성은 정서적 친밀감에 기반을 둔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남성과는 다른 정서발달 양상을 갖기 때문에 발달과정에서의 성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도금혜, 2008; 정옥분, 2008; 윤미경, 1999; Hartup & Overhauser, 1991). 이에 따라 학계에서 여성 대학생들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Jones, 1995), 미국의 대학 내 프로그램에서는 친밀감과 관계를 다루는 여성 대상의 Girl's group이 특화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발달과정에서의 성차에 대한 논의가 다소 미흡하여, 성차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박선영(2008)의 문제제기가 있

었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의 형성 정도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 성차에 주목한 국내 연구는 현재까지도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발현성인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어, 관련 연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그러므로 발달과업에서의 성차와 관련한 Gilligan의 연구로부터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성차에 대한 논의가 유효한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성차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발현성인기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논의는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복지정책 측면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하경희, 2017)와 같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통한 노년 정신건강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정신건강, 특히 청소년기에 입시로 인하여 자아정체감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채 20대에 진입하는 전환기(transition period)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논의와 지원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앞서 언급했듯이 Erikson의 점성적 발달 원칙에 근거하여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성취되었어야 할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 이후 발달과업 성취에서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발달과업 성취 상에서 발생하는 위기인 침체감과 절망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생 전반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Erikson, 1968: 95). 그러므로 성인기 초기에 진입하는 발현성인기 청년

---

2) 성별에 따른 발달에 주목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의 중독이 자아정체감을 매개효과로 하여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송지원, 이주리, 2018)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애착 정도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주은지, 2011) 등이 있었다. 그러나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직접 다루는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발현성인기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결합한 연구 역시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들의 발달과업 성취 정도를 파악하여, 실증연구 기반의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고등학교까지의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자아정체감의 정도가 성인기 초기로 진입하는 전환기(transition period)인 발현성인기의 친밀감 발달과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있는지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친밀감 형성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의 역할을 검증하고, 학계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의 논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모색해볼 것이다.

또한 앞서 제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발현성인기라는 특성 상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이 주장한 친밀감의 두 요소 중 친구나 동료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애착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애착은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지위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개발된 송현옥(2008)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를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집단 대비 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동적인 특성을 가진 자아정체감 지위를 설문조사로 측정하고자 하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애착은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근거하여, 세 가지 변수(의사소통, 신뢰, 소외)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Bowlby는 영유아와 주 양육자와의 반복적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내적작동모델을 주장하였다(Bowlby, 1973). 내적작동모델에 따르면 영유아가 주 양육자에게 원하는 바를 울음이나 웅얼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주 양육자의 일관된 반응을 통해 영·유아가 의사소통을 일련의 상호작용 패턴으로 인식하면, 영·유아는 주 양육자가 다음에 취할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Wallin, 2007/2010). 이 때 영유아

가 느끼는 감정은 ‘신뢰’이다. 반대로, 주 양육자가 일관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영유아가 느끼는 감정은 불신 혹은 ‘소외’이다.

내적작동모델은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Holmes(1993/2005)는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애착으로부터 벗어나 또래집단과의 애착을 형성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토대로 성인기에 로맨틱한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 초연(detachment)과 재애착(reattachment)의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의 조작적 정의로서의 사회적 관계 애착을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라는 세 가지 변수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친구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애착을 세 변수로(의사소통, 신뢰, 소외) 유형화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는 국내에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예: 오은화, 2018; 석주영, 박인전,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 가지 변수로 유형화하여 연구함으로써,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이 친밀감 형성에서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부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사이의 세밀한 관계를 고려한 사회복지학적 개입과 정책적 측면에서의 논의의 필요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성차를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관련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해보았다. 애착 관계 형성 과정,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발달 순서상의 차이와 관련한 미국의 선행연구들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봄으로써 성차를 고려한 우리나라 발현성인기 청년 대상 사회복지학적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제 3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여, 발달과정 상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의 과도기에 있는 발현성인기 청년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또한,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별의 영향력 측정을 통하여 성별에 따른 개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발생하는가?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자아정체감

#### 1.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Erik Erickson은 Sigmund Freud가 주장한 정신분석이론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8단계로 구성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Freud의 정신분석이론과 달리,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는 인간을 자아에 의해 통제 가능한 합리적, 이성적, 창조적인 존재로 규정하였다(강상경, 2018). 다시 말해, 이론에서 인간의 무의식을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을 사회적 관계와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은 생애 전반의 발달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Freud가 주장한 이론과 차이가 있다. Erikson은 인간 생애를 8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표 1>과 같이 제안하였다(Flammer, 2009: 97; 박아청, 1990: 56; Erikson, 1968: 94). 대각선의 굵은 글씨는 각 발달단계 별 발달과업을 의미한다. 대각선 아래의 작은 글씨는 각 발달단계에 현재화하는 심리사회적 위기가 변화된 것을 나타내며, 대각선 위의 작은 글씨는 청년기 이후 현재화된 성인기의 위기를 나타낸다.



<표 1>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의 8단계와

심리사회적 위기발현 시기

(Flammer, 2009: 97; 박아청, 1990: 56; Erikson, 1968: 94)

VIII 성인 후기								자아 통합 vs. 절망
VII 성인 중기							생산성 vs. 침체	↓
VI 성인 초기						친밀감 vs. 고립감	↓	
V 청소 년기	시간전망 vs. 시간확산	자기확신 vs. 정체감 의식	역할실험 vs. 부정적 정체감	달성의 기대 vs. 노동마비	정체성 vs. 정체성 혼란	성적 정체감 vs. 양성적 혼란	생식성 vs. 침체성	통합 vs. 절망
IV 학령기		↑	↑	근면성 vs. 열등감				
III 아동기	↑		주도성 vs. 죄책감					
II 유아기		자율성 vs. 수치심, 의심						
I 영아기	신뢰 vs. 불신							
	1	2	3	4	5	6	7	8

인간은 발달 시 각 생애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심리사회적 위기란 자아 동조적(ego-syntonic)인 것과 자아 이질적(ego-dystonic)인 것 사이의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Erikson, 1982: 55). 만약 인간이 심리사회적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자아 동조적인 것과 자아 이질적인 것 사이의 긴장을 적절히 해소할 시 긍정적 자아 특질을 획득하게 된다. 반면, 긴장이나 갈등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지속될 경우 부정적 자아특질을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각 생애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시 긴장 해소의 결과는 대립적인(versus) 성질을 가지게 된다.

## 2. 자아정체감(identity)

Erikson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자아정체감 형성으로 보았다.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 중 가장 마지막 시기에 위치하였으며, 이 시기의 청소년은 2차 성장을 통한 신체의 성숙과 성인으로서의 역할이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Erikson, 1968: 128).

‘자아’라는 개념은 Freud의 인격구조론에서 발달되었다. Freud는 인간의 인격이란 에스(es), 자아(ich), 초자아(über ich)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박아청, 1990). 인격에 대한 위의 세 가지 개념은 영어로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번역되었다. Freud는 인간을 원초아와 자아, 초자아 사이에서 갈등하며 본능에 충실한 수동적인 역할로 본 반면, Erikson은 Hartmann과 유사하게 인간을 자율성(autonomy)을 가진 존재로 해석하였다(Erikson, 1968: 222). 자아는 발달 과정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의 자신 모습에 새로운 자신을 통합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자율성을 나타낸다. 자율성이 있는 자아는 발달 과정에서의 위기를 통합하여 발전하고자 하는 모습과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 하는 능동성,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 및 성인들의 사회적 놀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유희성이라는 특성으로 설명된다(박아청, 1990). 정리하자면, 자

자아정체성이란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모습과 타인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통합해가며 형성해나간 자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정체성이 능동적으로 확립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자아정체감이 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장 과정에서 획득해 온 일관된 자아상을 균열하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혹은 새로이 얻게 될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된다. Erikson은 Umwelt, 즉 환경(environment)이란 수많은 타인의 자아들로 구성된 외부 세계이고, 인간은 이러한 환경과의 미묘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서로의 존재를 활성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Erikson, 1968: 219).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또래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정치적 성향에 대한 토론,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연습,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생활 전반에서 겪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영역과 역할을 경험하는 모든 과정과 사회적 역할에서 발생하게 된다(Flammer, 2009; Erikson, 1963: 148).

청소년기에 세 가지 자아, 즉 기존의 자아와 타인의 자아,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획득된 자아의 융합을 통하여 자아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때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을 확립하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나갈 수 있다(홍강의 외, 2014). 반면,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이 적절히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 자아정체성에 혼란(confusion<sup>3)</sup>)을 경험하게 된다. 박아청(1990: 75)은 Erikson이 제시한 자아정체성 혼란 시 나타나는 경계상태(borderline state)의 증상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자아정체성 혼란 시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유예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엄(moratorium)’ 상태를 지속한다. 모라토리엄 상태에 대해 Erikson(1968: 157)은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

---

3) Erikson은 자신의 연구 『The Problem of Ego Identity』에서 정체감 확산, 즉 identity diffu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가 있다(Erikson, 1956). 그러나 diffusion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한 끝에 Erikson은 1968년 이후로 혼란(confu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를 다하는 데 지연되는 상태를 넘어, 청소년기의 자극적인 놀이(playfulness)와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선별적으로 취하는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Erikson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이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년들의 자아정체성 모라토리엄에 대해 우려한 바가 있는데(Erikson, 1968), 현대에 들어 실제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청년들의 모라토리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발현성인기 청년들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발달 과업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하여 자아정체성 혼란과 모라토리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모라토리엄 상태가 지속되면 현실(Realität)과의 상호성이 감소하여 허무함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할 동력을 상실한다. 또한 상호성의 감소로 인하여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고립감이 깊어지게 된다.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되고, 타인의 평가를 자아라고 여겨 대인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자의식 과잉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정체성 혼란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될 때, 심한 경우에는 자아 경계가 붕괴되어 이른바 ‘세계몰락체험(Wertuntergangserlebnis)’을 경험할 수 있다(박아청, 1990).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은 청소년기만의 과업은 아니다. Erikson은 자아정체성 형성 시기에 대해, 청소년기에 시작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무의식적 발달과정이라고 하였다(Erikson, 1959). 그렇기 때문에 identity와 identification을 용어상으로 구분하여, identity를 본질적이고 고정된 개인, identification을 변경 가능한(open-ended)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Yon, 2000: 12-13). 다만, 어린 시절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은 영아기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발달시켜 온 자아정체성을 주변 환경으로 크게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확립된 자아정체성은 사회로의 원활한 진입을 돕고, 자아정체감을 기반으로 하여 이후 생애에서의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Erikson, 1968: 155-156).

그러므로 Erikson은 전 생애에 걸친 자아정체성 발달 중 청소년 시기를 가장 주목하여,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을 자아정체감 획득으로 보았다.

## 제 2 절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친밀감

### 1. 친밀감(intimacy)

Erikson은 청소년기 후기부터 초기 성인기(early adulthood)에 형성되는 친밀감에 주목하여, 성인기 초기 주요 발달과업을 친밀감(intimacy)로 보았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도덕관념과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정체성, 그 중 이념적 신념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관념과 이념적 신념은 친밀한 관계, 경쟁적인 관계, 혹은 증오 관계 등이 윤리적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데 도움을 준다. 친밀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정체성과 결합하고자 할 때 형성된다(Erikson, 1968: 135). Erikson이 정의하는 친밀감은 Freud가 주장한 “Lieben und arbeiten“ (“to love and to work“)에서의 생식, 성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Erikson은 친구 관계, 성적인(erotic) 만남, 영감을 공유하는 만남(joint inspiration) 등에서 발생하는 상호간의 진실한 심리사회적 감정을 포괄적으로 친밀감이라고 정의하였다(Erikson, 1968: 135-136).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이 말한 친밀감 중 로맨틱한 파트너십 관계에 선행되는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를 발현성인기의 주요한 친밀감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광의적인 친밀감의 개념을 반영하여, Ochse & Plug (1986)는 친밀감 발달과업의 성취 여부를 7가지 질문을 통하여 측정하려 시도한 바가 있다. 질문은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으로 나뉘는데, 긍정적인 질문에는 ‘나는 타인과 완전히 교류하는 느낌을 받는다.’와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가 있다. 반면, 부정적인 질문에는 ‘아무도 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곤란해진다.’가 있다.

Erikson은 친밀감 형성 과정을 이전 발달단계에서 형성한 자아정체성과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Erikson에 따르면, 자아정체감이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진정한 상호작용이나 자기포기(self-abandon)에서 오는 친밀감이 아닌 혼잡한(promiscuous)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포기(self-abandon)란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간은 만약 이 시기에 친밀감 과업<sup>4)</sup> 성취를 하지 못하면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친밀감의 상대적 개념은 ‘distantiation(거리두기)’이다. 이것은 개인에게 위협하다고 생각되는 상대의 힘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립하고, 필요할 경우 파괴하려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태가 늘 지속될 경우 친밀감과 고립감 사이의 경계가 강화되고,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사이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여 과대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Erikson, 1968: 135-136). 나아가, 거리두기가 강화된 사람은 적대적인 감정이나 증오, 거부,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 쉽게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전쟁 상황 등에 이용되기 쉬우며, 지나치게 자기희생적인 모습도 보일 수 있다(Flammer, 2009: 101; Erikson, 1968: 136).

---

4) Erikson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친밀감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자아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는 친밀감까지 과업으로서 강조하였다(Erikson, 1968: 135-136).

## 2. 친밀감(intimacy)과 애착(attachment)의 이론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애착(attachment)에 주목하였다. 애착<sup>5)</sup>이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심리적인 연결성을 말한다(Bowlby, 1969). 즉, 한 개인이 특정한 애착대상에 심리적으로 형성한 지속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를 애착이라 한다. 이는 Erikson이 말한 ‘깊은 정서적 친밀감’이 의미하는 바와 유사하다.

Bretherton(1991)은 영·유아기의 애착을 다른 아동에게 재미를 위해 하는 탐색행동과 구분하며 생존과 연관된 안전조절체계(safety-regulating system)라고 정의하였다. Bowlby는 애착을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애착이 형성되는 생애 초기에서의 과정을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하여 설명하였다(Bowlby, 1982/2009).

내적작동모델은 Bowlby가 Kenneth Craik의 인지심리학에 기초하여 주장하였다. Craik(1943: 61)는 한 유기체가 외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축소판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Bowlby(1973: 203-204)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내적작동모델을 자신의 애착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반응 혹은 수용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델이라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은 내적작동모델을 통하여 애착대상에게 얼마나 다가가도 되는지, 애착대상에 대한 신뢰를 예측하게 된다. 대상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행동이 일종의 도식(schemata)을 형성한다고 주장한 측면에서, Bowlby의 내적작동모델은 Jean Piaget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Wallin, 2007/2010).

내적작동이론에 따르면, 애착대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한 아동은 애착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반면, 애착대상으로부터

---

5) Bowlby는 1982년에 자신의 저서 『Attachment』를 개정하면서, 애착과 애착행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용어의 혼란을 바로잡았다. 애착과 달리 애착행동은 한 개인이 애착대상(영아의 경우 특히 주 양육자)과의 근접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Bowlby, 1982/2009).



터 안정감을 느끼고 지지를 받으면 아동은 애착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Bowlby, 1973: 204). 이처럼 아동이 애착대상에게 하는 행동과 이를 통해 느끼는 감정을 통해, 아동은 자신만의 대인관계 양상을 머릿속에 도식화하게 된다. 인간은 이러한 도식을 타인과의 관계 패턴으로 학습하여, 친구와 파트너 관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려는 데 사용한다(Teyber, McClure, 2010/2013). 부모와 자녀 간에 형성된 인지모델은 인간이 성장해감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로 변화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상관계이론가들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도식을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성장과정과 이후에서의 애착 및 대인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라고 주장한다(Cashdan, 1988).

이러한 Bowlby의 내적작동이론에 대한 설명은 이후 학자들이 애착이론을 전 생애의 발달로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정옥분, 정순화 & 황현주, 2009). Bartholomew과 Horowitz(1991)는 애착대상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 경험으로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할 경우 아동은 안정감을 느끼고, 향후 친구나 배우자와 안정적인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모델을 형성하였을 경우 친밀함을 느껴야 할 주 양육자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의 형성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영아기의 애착이 내적작동모델을 통해서 전 생애동안 변화하는 과정은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Holmes, 1993/2005: 189)

〈표 2〉 Holmes가 주장한 생애 별 애착유형의 발전 단계  
(Holmes, 1993/2005: 189)

영아기	유아기	잠재기	청소년기	→	성인기
어머니의 돌봄	애착 유형	관계양식	내적세계	↗ ↘	(a) '사고에 대한 사고'  (b) 자신-타인 표상

영아기와 유아기, 잠재기를 지나 청소년기에는 내적 세계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은 자신과 환경 사이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시험받고 평가받는다. 이 시기에는 전형적으로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친구 등과 같은 가족과 떨어진 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Slavin & Kriegman, 1992). 그러므로 청소년은 가족이라는 환경에서부터 더 넓은 성인의 사회적 관계로의 전환을 이루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Slavin, 1996: 39). 이는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두드러진다는 Erikson의 발달과업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가족과의 애착 형성에서 친구, 로맨틱한 파트너 관계 등 더 넓은 사회적 관계와의 애착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을 거치는, 일종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Brandell & Ringel, 2007). 이렇게 새로운 집단에서 형성된 자아정체성을 토대로 성인기에는 사고에 대한 사고와 자신-타인 표상, 즉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내적 표상이 형성되며 애착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Bowlby의 애착이론과 내적작동모델, 내적작동모델 기반의 성인 애착이론 연구들을 토대로, Armsden & Greenberg(1987)는 부모와 애

한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척도를 개발하였다. IPPA는 그 중 또래애착(peer-attachment)<sup>6)</sup>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한 유기체와 애착대상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의 질(quality of communication)’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표상을 ‘상호 신뢰 정도(degree of mutual trust)’,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표상을 ‘분노와 소외의 범위(extent of anger and alienation)’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의사소통’, ‘신뢰’, ‘소외’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발현성인기에 있는 청년들의 낮은 자아정체감 형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위축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이 주장한 친밀감의 개념 중 친구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친밀감의 성취를 IPPA의 ‘또래애착(peer-attachment)’ 변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Erikson이 정의한 친밀감은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넘어 포괄적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긴밀한 감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 전반의 발달과업 성취가 아닌,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의 과도기에 있는 발현성인기의 청년들이 성인기 초기로 이행하는 과정과 이전 발달과업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친구와 동료, 사회적 관계 형성 이후 로맨틱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을 전제 하에(Brandell & Ringel, 2007: 136; Allen & Land, 1999: 319-335) 발현성인기 청년들의 친밀감을 또래애착(peer-attachment)을 통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

6) 여기서 의미하는 또래(peer)란 사회적 위치, 인지능력, 행동의 복잡도가 유사한 사람(최순영, 2003; Lewis & Rosenblum, 1975)이다. IPPA의 ‘peer-attachment’ 척도가 ‘또래애착’으로 번역되었을 뿐,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또래’의 좁은 의미와 같이 반드시 나이가 같은 사이에서의 친구 관계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 3 절 점성적 발달 원칙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의 관계

#### 1. 점성적 발달 원칙(epigenetic principle)

Erikson은 이전 발달과업 성취에 성공하였을 때 다음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점성적 발달 원칙(epigenetic principle)이라 한다. Epigenetic principle은 utero, 즉 자궁에서 유래되어 자궁 내에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을 빗대어 표현한 용어이다.

Erikson은 인간이란 내재된 기본 계획(ground plan)을 토대로 발달하는 존재이며, 각 발달시기마다 특별히 중요하고 우세한 발달 과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발달과업은 특별히 중요한 시기(special ascendancy)를 지나서도 과업이 온전히 기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Erikson, 1968: 91-92). 하지만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는 발생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특정 단계의 발달과업은 이전 단계의 발달과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Erikson, 1950: 270-27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성적 발달 원칙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성취 정도가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sup>7)</sup>.

---

7) 점성적 발달 원칙은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이라는 두 발달과업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 청년을 다루고 있으므로, 점성적 발달 원칙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부록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중1패널 3차년도(2012, 중학교 3학년) 자료의 자아정체감과 7차년도(2016,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자료의 친밀감 사이의 관계를 MANCOVA(다변량공분산분석)로 분석하였다.

## 2. 자아정체감이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병리학적·임상적 영향

위와 같이 Erikson은 인간의 발달을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Erikson(1968)은 이러한 점성적 발달 원칙에 근거, 자아정체감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병리학적·임상적 관점에서 서술한 바 있다.

Erikson은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형성(engagement)은 자기 묘사(self-delineation)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성인 이전의 인간은 잠정적인(tentative) 형태의 친구 간 친밀감과 경쟁을 넘어 사랑, 성행위, 논쟁과 가십을 경험함에 따라 정체성 형성 문제와 내적 긴장감을 경험한다. 이때 내적 긴장감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면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고, 고정관념 갇힌 형식적인 대인관계만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대인관계 형성 시 격렬한 시도와 암울한 실패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관계형성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추구할 수 있다. 즉, 현실적이지 못한 관계형성을 추구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하거나 사라졌을 때에는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상호 자기에적 미러링(mutual narcissistic mirroring)에 의해 정체성의 모호한 윤곽을 만들어내 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말하자면, 자아정체감의 모호함으로 내적 긴장감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으면 상호 자기에적 미러링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빠진다는 의미는 자신의 경상(鏡像, mirror image)과의 사랑에 빠진 것을 의미하며<sup>8)</sup>, 스스로를 해하고 자신의 경상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즐거움이나 연애에서의 즐거운 감정이 자신에 의한 것인지 상대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로 자아는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융합(fuse)하여 이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정체성 혼란을 가져온다. 앞서 친밀감의 상대 개념으로 ‘거리두기(distanciation)’을 제

---

8) 자신의 경상(mirror image)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에적 성향(narcissistic)을 의미한다.

시한 바 있는데, 정체감의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거부하는 거리두기의 부족이나 과잉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고립감을 심화시킨다(Erikson, 1968: 165-169).

정체감 형성 및 정체감이 친밀감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인지의 상호성(mutuality of recognition)에 근거하여 주 양육자와의 애착으로부터 설명하는 관점도 있다. 6~8개월 된 아기는 부모와 타인을 식별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아이는 원초적인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이 때 동화(incorporation)가 발생하였다고 말한다. 이 시기에 욕구를 해소해주고 이에 응답해주는 일관성 있는 존재와의 애착은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된다. 또한 웃기나 울기와 같은 의사표현이 단순히 욕구불만이나 허무감으로 끝나지 않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사소통과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감이 형성된다. 따라서 자아의 경계(ego-boundary) 구분, 즉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므로 신뢰는 정체성 형성을 발달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될 경우 혹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아이는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 불안감과 분노는 사회적 불신감의 원형이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분노와 같은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 격렬한 불안감과 우울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불신은 소외감을 야기한다(박아청, 1990).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급격히(acute) 혼란스러워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에 급속하게 정체성의 혼란과 퇴행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 시기에 심리사회적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현실과의 상호성을 상실하여 허무감에 빠지게 된다. 이는 대인관계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소외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박아청, 1990: 64-70). 또한 자신과 타인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를 갖추는 능력을 상실하여 ‘유희적인 친밀성(playful intimacy)’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심한 경우 망상에 빠지기도 하며, 대인관계가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자아 상실을 불러오는 자기에적인 친밀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체감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분노가 발생할 수 있고, 불안과 분노가 울분 형태와 같이 외부에 표출되면 인간관계의 급속한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상대에게 불안과 분노가 표출되기 때문이다(박아청, 1990: 76-78; Erikson, 1968: 165-169). Erikson(1968: 167)은 정체감 상실로 인한 친밀감 형성이 어려워진 상태를 거울에 비친 자기상을 사랑하나 자기상의 혼란으로 상처를 받고, 분노로 거울을 부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로 친밀감 형성을 위한 타인과의 의사소통 없이 고립되고, 피상적인 대인관계만을 유지한다. 나아가 불안과 분노, 소외감의 해소를 위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하나, 허무감에 빠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여 자기혐오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자기혐오와 허무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피상적 관계를 형성하려 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어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악순환으로부터 느끼는 우울과 소외감, 자기혐오, 허무감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와 같이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의 관계를 병리학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주 양육자로부터의 애착, 즉 생애 초기의 발달에서부터 설명하는 연구들도 있다. Bowlby와 Erikson은 모두 부모와의 애착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안정적으로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은 외부 세계에 대한 탐색(exploration)을 촉진시켜 정체성 형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Pao, 1996). Erikson(1968: 249)은 이 과정을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을 통해 형성된 신뢰는 자기 스스로와 타인에 대한 신뢰와 결합되어 정체감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Erikson에 따르면 애착관계는 개인의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에 대한 Erikson의 이론과 후속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애착과 자아정체감, 친밀감은 발달과정 중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은 성인애착의 관계 패턴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청소년기와 이후의 친밀감 형성 발달과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정옥분, 정순화 & 황현주(2009: 123-126)는 안정애착 성향의 아동은 양육자로부터 신뢰를 형성하고, 불안정애착 성향의 아동은 불신을 형성한다는 설명으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과 Bowlby의 애착이론 간의 관계를 서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 양육자와의 의사소통으로 형성된 아동기의 신뢰와 불신은 성인기의 애착형성의 근원이 된다는 점으로 두 이론 간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 제 4 절 성별과 발현성인기 발달과업 성취의 관계

### 1.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의 성차

Erikson(1964: 598)은 여성의 개인과 신체적 조건, 사회적 상황 간의 관계를 ‘내적 공간(inner spa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본래 내적 공간이라는 개념은 Erikson이 남녀아동 150명의 놀이행동 관찰 연구를 바탕으로 주장한 것으로(Erikson, 1950), 공간사용에 있어서 남아가 외적 공간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면 여아는 내적 공간을 이용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에서 비롯되었다.

Erikson은 여성의 자아정체감은 생물학적인 특성(Soma)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특성(Psyche), 사회적 특성(Polis) 등을 포괄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Erikson, 1964). 생물학적 특성에서는 여성이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에게 물리적, 문화적, 개인적 측면에서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른바 ‘사회생물학적(socio-genetic)’ 역할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특성(Polis)에서는 남성 정치인에 의해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사결정이 제한되는 측면, 직업에서 성 역할 등에서의 정체감 성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심리학적 특성(Psyche)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여성의 자아(ego)가 개인의 특성, 신체적 친밀감, 생산 잠재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rikson, 1964: 603-606).

이렇듯 Erikson은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은 여성 관점에서의 심리, 생물, 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발달단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박아청, 2010). 또한, 여성의 ‘사회생물학적’ 역할, 즉 한 남성의 아이를 잉태하는 공간으로서의 내적 공간을 주장한 Erikson(1964)의 주장은 Gilligan(1979)을 비롯한 이후 학자들에게 심리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영역을 생물학적 영역에서 설명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 2. 자아정체감 형성이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는 성차

Erikson(1968)이 말하는 여성의 친밀감은 크게 로맨틱한 관계에서의 친밀감 형성을 통해 자녀를 갖는다는 생물학적 관점과 청소년기부터 이어온 가족, 친구 등 주변인과의 친밀감 형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뉠 수 있다(박아청, 2010).

Hodgson & Fisfer(1979)은 Erikson이 의미한 여성 발달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차원의 친밀감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 초기 남성은 정체성이, 여성은 성 역할이나 성적 이데올로기가 잘 형성되어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남성은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사이의 관계가 높으나, 여성은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의 발달이 평행을 이루었다. 이 결과는 발달에서의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Erikson의 가설, 그리고 기존의 이론들은 남성 중심일 것이라는 Erikson의 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결과는 앞서 여성의 ‘사회생물학적 역할’에 대해 비판한 Gilligan이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형성 간의 관계에 대해 주장했던 바를 지지한다. Gilligan(1979; 1982b)은 남성의 경우 정체성은 친밀감보다 우선적인 과정이지만, 여성의 경우 정체성과 친밀감 형성은 융합된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Gilligan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과 친밀감이 동시에 발달하거나 친밀감 발달이 선행될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근거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체감 형성 후 친밀감이 형성된다. 이는 여성이 자아정체감 형성 시에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에서 증명되기도 하였다(Thorbecke & Grotevant, 1982).

반면,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Erikson(1968)의 이론과 달리 정체성을

Marcia의 4가지 정체성 지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Archer, 1982)와 일부 정체성 분야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Archer, 1989)도 있었다. 또한, 다양한 요인이 자아정체감 지위와 친밀감 지위 간의 관계에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고, 자아정체감 지위와 친밀감 지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Craig-Bray, Adams & Dobson, 1988).

이처럼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 자아정체감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석하는가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체감을 측정하는 데에는 Marcia(1966)의 정체감 지위(identity status)법을 사용한 연구<sup>9)</sup>, Marcia의 정체감 지위법과 Orlofsky 등의 intimacy status interview, 즉 친밀감 지위 면접법(Orlofsky, Marial & Lesser, 1973)을 혼합하여 사용한 연구<sup>10)</sup>, 친밀감 지위 면접법을 사용한 연구<sup>11)</sup> 등이 혼재되어있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친밀감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즉 로맨틱한 관계 형성에서의 친밀감과 주변인(친구, 가족 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감을 혼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친밀감의 두 가지 개념을 분산하여 자아정체감과의 연관성을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박아청,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흐름을 반영하여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측정하고자 한다. 첫째, Marcia의 자아정체감 지위 분석 척도가 문화적 맥락, 민족의 특징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개발된 송현옥(2008)의 척도를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고자 한다(박아청, 1994). 둘째, 친밀감의 두 가지 개념 중 청소년기부터 이어져오는 친구 등 주변인과의 친밀감을 채택하고자 한다. 친밀감과 관련하여 Erikson과 Bowlby는

---

9) 예: Archer의 1982년 연구.

10) 예: Hodgson과 Fischer의 1979년 연구.

11) 예: Craig-Bray, Adam & Dobson의 1988년 연구.

궁극적으로 로맨틱한 파트너와의 깊은 관계 형성이 결혼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Holmes, 1993/2005: 135-136; 박아청, 1990). 하지만 주변인과의 친밀감은 청소년기부터 지속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발현성인기 청년에게 결혼과 같은 로맨틱한 파트너와의 관계 형성에 앞서서 나타나는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에 보다 주요하게 나타나는 친구 등의 주변인과의 친밀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제 5 절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소득과 연령을 통제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은 자원 이용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소득은 청소년의 정서적 친밀감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기존 논의 및 선행연구들이 있었다(민하영, 2008; 윤나리, 김영란, 2004; Holcomb-McCoy,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정규성 확보를 위하여 가구연간소득의 자연로그 값의 형태로 변환하여 통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은 학년 구분상으로는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년이 아닌 실제 연령상으로는 최대 2세까지 차이가 발생하였다. 연령이 심리사회적 성숙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장휘숙, 2005; 장휘숙, 정윤경, 2005),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통제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출생연도와 출생 월을 변수로 측정하였다. 통계적 편의를 위하여 두 변수를 연령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변환하였다. 연령은 출생 후 개월 수로 계산하였다.

##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 제 1 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토대로,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의 정도의 성차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발현성인기 청년에게 나타나는 자아정체감 혼란과 사회적 관계 위축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가설 1-1.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1-2.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1-3.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소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문제 2]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 형성에 주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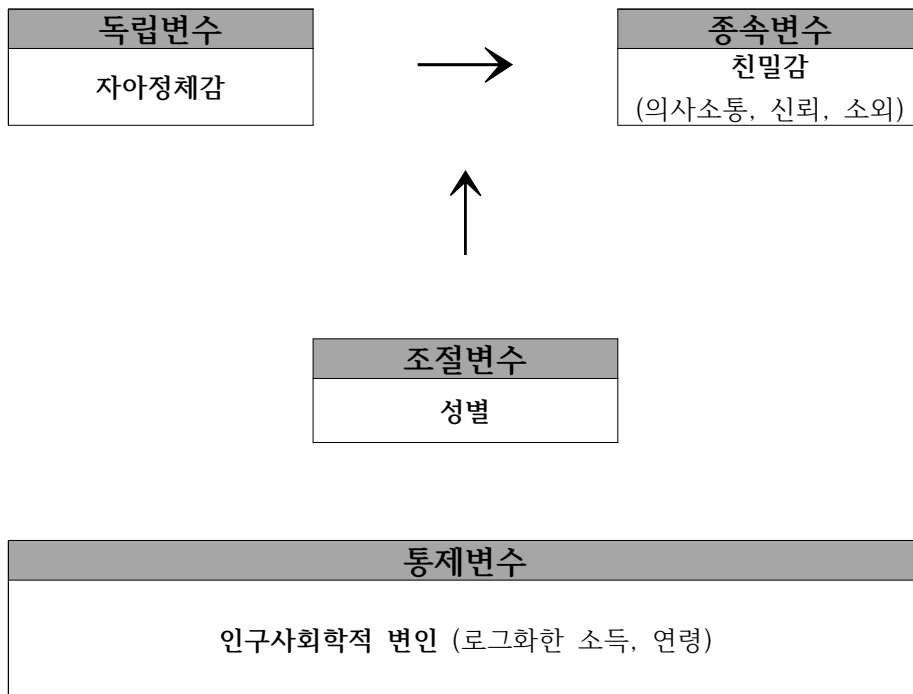
연구가설 2-1.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2-2.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2-3.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소외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 제 2 절 연구모형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또한, 다음 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분석 방법인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각 종속변수의 모수추정치를 나타내는 식이다.

$$\widehat{Y}_{n(n=1-3)} = a + \beta_1 D_1 + \beta_2 M_1 + \beta_3 D_1 M_1 + \beta_4 X_1 + \beta_5 X_2 + \epsilon_i$$

$\widehat{Y}_1$ : 의사소통    $\widehat{Y}_2$ : 신뢰    $\widehat{Y}_3$ : 소외

$a$  : 절편

$D_1$  :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

$M_1$  : 성별

$D_1 M_1$  :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와 성별의 상호작용

$X_1$  : 소득,  $X_2$  : 연령

## 제 4 장 연구방법

### 제 1 절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의 중학교 1학년 패널 7차(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에 3개 패널(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7개년 추적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제7차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1차 조사는 2010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7차 조사는 2016년에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유저 가이드에 따르면, 제1차 조사(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패널은 제7차 조사에서 대학교 1학년으로 명명되어있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제7차 조사 대상자들이 실제로 모두 대학에 진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연령대로 간주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목표표본을 3개 패널 총 6,600명으로 설정하여 2010년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학생 수에 비례하여 목표 표본을 할당하였다. 그리고 확률비례추출법(PPS)에 근거하여 표본학교를 추출하고, 무작위로 표본학급을 선정하였다. 조사를 거절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접한 타 학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체표본을 추출하였다. 중1패널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식을 통해 표집이 이루어졌다. 2010년 4월 기준 전국의 2,320개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총 2,35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3>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중1패널 조사 데이터 구축 현황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표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중1패널 조사 데이터 구축 현황

1차 조사 (2010년)		2차 조사 (2011년)		3차 조사 (2012년)		4차 조사 (2013년)	
조사 표본	원표본 유지율	조사 표본	원표본 유지율	조사 표본	원표본 유지율	조사 표본	원표본 유지율
2,351명	100.0%	2,280명	97.0%	2,259명	96.1%	2,108명	89.7%
5차 조사 (2014년)		6차 조사 (2015년)		7차 조사 (2016년)			
조사 표본	원표본 유지율	조사 표본	원표본 유지율	조사 표본	원표본 유지율		
2,091명	88.9%	2,056명	87.5%	1,881명	80.0%		

중1패널의 원 표본은 제2차 조사에서 2,280명(원 표본 유지율 97.0%), 제3차 2,259명(원 표본 유지율 96.1%), 제4차 2,108명(원 표본 유지율 89.7%), 제5차 2,091명(원 표본 유지율 88.9%), 제6차 2,056명(원 표본 유지율 87.5%), 제7차 1,881명(원 표본 유지율 80.0%)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표본 이탈이 적음을 고려하여 동일 표본설계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탈된 표본은 데이터 가중치 설정을 통해 보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발현성인기 청년 1,881명 중,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에 필요한 모든 변수에 응답한 인원인 1,68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개인영역과 환경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이란 개인을 청소년 개인의 발달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정, 교육, 지역사회, 매체, 또래 등의 환경체계 전반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하는 관점이다. 인간은 개인 내적 요소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Bronfenbrenner, 1979).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은 Bronfenbrenner가 제안한 생태학적 관점을 수용하여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본 연구는 개인과 주변 환경, 즉 개인 내적 요소와 또래를 비롯한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조사 문항은 크게 개인 영역과 환경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개인영역은 신체·지적·사회·정서발달과 관련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영역은 가정, 또래, 교육, 지역사회, 매체의 5가지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영역에 해당하는 정서발달(자아정체감)이 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친밀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1. 독립변수: 자아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7차년도(2016) 데이터의 자아정체감 변수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자아인식을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의 네 가지 하위 변수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인식 중 자아정체감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송현옥(2008)의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척도 27문항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선별하여 일부 수정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4>는 원 척도 중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사용된 송현옥(2008)의 원 척도 문항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일부 수정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송현옥(2008)의 자아정체감 원 척도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척도 대조표

송현옥(2008)의 원 척도 질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이 발췌, 수정한 질문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언동에 영향 받기 쉽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 받기 쉽다.

송현옥(2008)의 자아정체감 원 척도는 5점 Likert 척도 방식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점, ‘그저 그렇다’가 3점, ‘대체로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에 해당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원 문항의 11번 문항은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의 긍정문항으로 변경되었다. 원 문항의 17번 문항은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원 문항의 24번 문항은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의 긍정문항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 문항의 26번 문항은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 받기 쉽다.’로 변경되어, ‘언동’이라는 단어를 ‘말과 행동’이라 풀어서 해설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매우 그렇다’가 1점, ‘그런 편이다’가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4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문항 중 1, 3, 5번 문항을 역코딩 처리하여, 점수 합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수 합을 구하여 각 문항마다의 평균적 응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자료상에서 자아정체감 문항 간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alpha$ 는 .714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에 따른 친밀감 과업 성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정체감 척도는 자아정체감의 형성 정도를 일정 점수를 절단점으로 설정하여 형성 정도를 측정하거나 구분하는 척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 변수를 평균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고자 한다. 자아정체감 변수를 평균 기준으로 집단 구분을 함으로써 평균 미만의 정체감 발달 과업 성취 집단 대비 평균 이상의 정체감 발달 과업 성취 집단의 친밀감 발달 과업 성취의 비교가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자아정체감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0, 높은 집단을 1로 더미변수 처리하는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 2. 종속변수: 친밀감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이 제안한 친밀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친밀감 변수는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라는 세 가지 하위항목으로 구성된 또래애착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세 하위항목은 인간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신뢰와 소외를 형성한다는 Bowlby의 애착이론과 내적작동모델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친밀감 변수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7)이 수정한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였다. IPPA는 Armsden & Greenberg(1987)가 개발한 애착척도로, Bowlby(1969, 1973)의 애착이론에 근거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의 IPPA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황미경(2010)이 수정한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재인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인용한 황미경(2010)의 원 척도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인용한  
황미경(2010)의 또래애착 원 척도

문항 번호	하위요인	질 문
2	의사소통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4	의사소통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5	의사소통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7	신뢰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8	신뢰	나는 뭔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기댈 수 있다(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9	신뢰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1	소외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12	소외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13	소외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2, 4, 5번 문항이 하위 변수인 의사소통으로 재구성되었고, 7, 8, 9번 문항을 신뢰, 11, 12, 13번 문항을 소외로 재구성되었다. 그 중 2번 문항을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로 수정하여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상태를 강조하도록 하였다. 8번 문항을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 형성을 질문에 내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밀감은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원 척도에서는 5점 Likert 척도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 척도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매우 그렇다’가 1점, ‘그런 편이다’가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4점이다. 하위 변수(의사소통, 신뢰, 소외) 세 개 역시 점수 합의 평균이 높을수록 그 수준이 높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각 문항의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수 합계의 평균을 구하여 각 하위 변수의 문항 별 평균적 응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문항을 역코딩 처리하여 점수 합계의 평균이 높을수록 각 변수를 강하게 설명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SPSS 23.0으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를 계산한 결과, 의사소통은 .759, 신뢰는 .795, 소외는 .715로 나타났다.

### 3. 조절변수: 성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남성이 1, 여성이 2로 코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다. 7차년도 데이터의 대상자 총 1,881명 중 남성이 927명인 49.3%, 여성이 954명인 50.7%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소득과 연령을 통제하였다. 소득은 가구연간소득으로, 단위는 만원이다. 한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출생연도와 출생 월을 변수로 측정하였다. 통계적 편의를 위하여 두 변수를 연령 변수로 변환하였다. 연령은 출생 후 개월 수로 계산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가 매년 4월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령, 즉 출생 후 개월 수를 측정하기 위해 7차년도 조사시점인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만든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였다.

$$\text{연령} = (2016 \times 12) + 4 - [(\text{출생연도} \times 12) + \text{출생 월}]$$

다음 <표 6>은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독립, 종속, 조절, 통제변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 6> 분석에 활용된 독립, 종속, 조절, 통제변수

구분	내용	변수명	값
독립변수	청소년기 발달과업 (정체감 형성)	자아 정체감	0=자아정체감 평균(2.6748) 이하 집단 1=자아정체감 평균(2.6748) 이상 집단
종속변수	성인기 초기 발달과업 (친밀감 형성)	의사소통 신뢰 소외	최솟값: 1 최댓값: 4 점수 총합의 평균이 높을수록 높은 정체감 형성 수준
조절변수	성별		0=남성, 1=여성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인	소득	ln(가구연간소득)
		연령	출생 후 개월 수

###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영향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자아정체감이 형성된 정도를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과 평균 미만 집단이라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는 더미변수 처리되었다. 또한 두 집단으로 나누는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친밀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의사소통, 신뢰, 소외)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독립변수의 두 집단과 종속변수의 세 가지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립표본 t-test와 MANCOVA(다변량공분산분석)를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SPSS 23.0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중1패널 7차년도 데이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첨도 및 왜도를 확인하였다. 첨도와 왜도를 확인함으로써, 표본이 정규성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 간 각 독립 및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더미변수 처리한 자아정체감과 종속변수인 친밀감의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 신뢰 및 소외, 조절변수인 성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M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험적 통제가 필요한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MANCOVA 분석에서는 통제변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하였다. MANCOVA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실험적으로 통제할 때, 관련 변수(통제변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한다.

셋째, MANCOVA 분석 결과를 통해, 독립변수인 자아정체감이 종속변수인 친밀감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 소외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확인하였다.

## 제 5 장 연구결과

###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구분	평균 / n	표준편차 / %	왜도	첨도	
독립변수	자아정체감	2.61	0.37	0.14	0.31	
조절변수	성별	남성	835 (명)	49.4 (%)	-	-
		여성	854 (명)	50.6 (%)		
종속변수	친밀감	의사소통	3.18	0.47	0.12	0.78
		신뢰	3.23	0.51	-0.17	0.43
		소외	1.98	0.61	0.41	0.01
통제변수	ln소득	8.36	0.55	-0.67	1.34	
	연령	224.37	3.96	0.44	2.44	

한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별의 경우, 통계분석 대상자 1,689명 가운데 남성이 835명(49.4%), 여성이 854명(50.6%)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인 2.61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나뉜 자아정체감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1로 코딩된 자아정체감 평균 이상 집단은 921명(54.5%)으로 집계되었다. 0으로 코딩된 자아정체감 평균 미만 집단은 768명(45.5%)으로 나타났다.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에서는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왜도의 절댓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자아정체감이 종속변수인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MANCOVA 분석 이전에 성별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표본 t-test를 통하여 성별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성별에 따른 독립 및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구분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확률 (양측)	
독립변수	자아정체감	남	2.63	0.36	3.71	0.000	
		여	2.58	0.33			
종속변수	친밀감	의사소통	남	3.13	0.48	-4.02	0.000
			여	3.22	0.46		
		신뢰	남	3.21	0.51	-1.51	0.130
			여	3.25	0.51		
	소외	남	1.99	0.61	0.65	0.519	
		여	1.97	0.61			

<표 8>에 따르면, 자아정체감과 의사소통 변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다. 남성을 기준집단으로 분석한 t-test를 통하여, 이 시기의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양

지웅, 2014; 박아청, 2004). 반면, 남성의 의사소통 점수는 여성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종속변수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평균 이상과 평균 미만 그룹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평균을 기준으로 자아정체감 평균 이상 집단과 평균 미만 집단을 설정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연구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다음 <표 9>를 통해 각 종속변수의 집단(자아정체감 평균 이상과 미만, 남성과 여성) 별 기술통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9〉 종속변수의 집단 별 기술통계량

	자아정체감	성별	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
의사소통	평균 이상	남성	3.26	0.51	356
		여성	3.37	0.48	305
		전체	3.30	0.50	661
	평균 미만	남성	3.04	0.44	479
		여성	3.13	0.42	549
		전체	3.09	0.43	1028
신뢰	평균 이상	남성	3.32	0.51	356
		여성	3.38	0.50	305
		전체	3.35	0.51	661
	평균 미만	남성	3.12	0.50	479
		여성	3.16	0.49	549
		전체	3.14	0.50	1028
소외	평균 이상	남성	1.85	0.60	356
		여성	1.78	0.61	305
		전체	1.82	0.61	661
	평균 미만	남성	2.10	0.59	479
		여성	2.06	0.59	549
		전체	2.08	0.59	1028

자아정체감이 평균 이상인 집단의 총 인원은 661명으로, 남성은 356명, 여성은 305명으로 집계되었다. 자아정체감이 평균 미만인 집단의 총 인원은 1028명으로, 남성은 479명, 여성은 549명으로 집계되었다.

자아정체감이 평균 이상인 집단의 남성 의사소통 평균은 약 3.26, 신뢰 평균은 약 3.32, 소외 평균은 약 1.85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 평균 이상인 집단의 여성 의사소통 평균은 약 3.37, 신뢰 평균은 약 3.38, 소외 평균은 약 1.78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 평균 이하인 집단의 남성 의사소통 평균은 약 3.04, 신뢰 평균은 약 3.12, 소외 평균은 약 2.10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평균 미만인 집단의 여성 의사소통 평균은 약 3.13, 신뢰 평균은 약 3.16, 소외 평균은 약 2.06으로 나타났다.

##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절에서는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자아정체감, 종속변수인 친밀감(의사소통, 신뢰, 소외), 조절변수인 성별, 통제변수인 연령,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Gujarati et al.(2010)에 따르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모두 0.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10>과 같다.

주요 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자아정체감과 종속변수인 의사소통( $r=0.28, p=0.000$ ), 신뢰( $r=0.26, p=0.000$ ), 소외( $r=-0.29, p=0.000$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성별과 종속변수 간에는 의사소통( $r=0.09, p=0.000$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 $r=0.04, p=0.130$ )와 소외( $r=-0.02, p=0.519$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성별과 연령( $r=-0.08, p=0.001$ )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독립변수인 자아정체감과 조절변수인 성별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r=-0.09, p=0.000$ ).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연로그를 취한 소득 변수가 종속변수와 부분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 변수는 종속변수인 의사소통( $r=-0.01, p=0.554$ )과 신뢰( $r=-0.01, p=0.713$ ), 소외( $r=0.01, p=0.736$ )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ln소득 변수의 경우, 종속변수인 의사소통( $r=0.03, p=0.314$ ), 신뢰( $r=-0.03, p=0.308$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ln소득 변수는 소외( $r=0.05, p=0.038$ )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10> Pearson의 상관관계에 따른 변수 간 상관관계

	자아정체감	성별	의사소통	신뢰	소외	연령	ln소득
자아정체감	1						
성별	-0.09*** (.000)	1					
의사소통	0.28*** (.000)	0.09*** (.000)	1				
신뢰	0.26*** (.000)	0.04 (.130)	0.72*** (.000)	1			
소외	-0.29*** (.000)	-0.02 (.519)	-0.30*** (.000)	-0.36*** (.000)	1		
연령	0.40 (.080)	-0.08** (.001)	-0.01 (.554)	-0.01 (.713)	0.01 (.736)	1	
ln소득	0.04 (.69)	0.00 (.977)	0.02 (.391)	-0.02 (.337)	0.04 (.089)	-0.02 (.419)	1

\*p<.05, \*\*p<0.01, \*\*\*p<0.001

### 제 3 절 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본 절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형성 정도가 친밀감의 각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MANCOVA라는 통계방법은 독립변수와 2개 이상의 종속변수,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측정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분석 결과를 다음 <표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1>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MANCOVA 모수추정치

변수	의사소통		신뢰		소외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절편	3.83	5.81***	4.11	5.69***	0.41	0.48
자아정체감 평균 미만(0)	-0.20	-6.39** *	-0.19	-5.47** *	0.26	6.29***
성별 (남성, 0)	-0.10	-3.28**	-0.05	-1.56	0.04	1.01
자아정체감 평균 미만(0) * 성별 (남성, 0)	0.03	0.73	0.04	0.87	0.00	0.01
ln소득	0.01	0.56	-0.03	-1.23	0.06	2.07*
연령	-0.00	-0.97	-0.00	-0.79	0.00	1.18

\*p<.05, \*\*p<0.01, \*\*\*p<0.001

자아정체감이 평균 미만인 집단의 의사소통과 신뢰 점수는 자아정체감이 평균 이상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았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평균 미만인 집단의 소외 점수는 평균 이상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

또한, 남성의 의사소통 점수가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았다. 한편 소득이 소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MANCOV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연구질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 1.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문제에서는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의 각 하위 요인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의 각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승합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자아 정체감	의사소통	20.80	1	100.33***	0.000
	신뢰	17.72	1	70.73***	0.000
	소외	28.72	1	81.46***	0.000

\*p<.05, \*\*p<0.01, \*\*\*p<0.001

독립변수인 자아정체감은 종속변수인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 $p=0.000$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자승합 20.80, F값 100.33( $p=0.000$ )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자승합 17.72, F값 70.73( $p=0.000$ )으로 나타났으며 소외에 미치는 영향은 자승합 28.72, F값 81.46( $p=0.00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문제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가설 1-1.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1-2.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1-3.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소외에 영향을 줄 것이다.

<표 14>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에 모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1-1, 1-2, 1-3은 지지되었다.

## 2.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 형성에 주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가?

본 연구문제에서는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 형성에 주는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조절변수인 성별에 따른 친밀감 형성의 차이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친밀감 형성의 차이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성별에 따른 친밀감 형성의 차이

조절변수	종속변수	자승합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성별	의사소통	2.87	1	13.58***	0.000
	신뢰	0.39	1	1.53	0.217
	소외	0.66	1	1.86	0.173

\* $p < 0.05$ , \*\* $p < 0.01$ , \*\*\* $p < 0.001$

성별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자승합 2.87, F값 13.58, 유의확률 0.000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자승합 0.39, F값 1.53, 유의확률 0.217로 나타났다. 성별이 소외에 미치는 영향은 자승합 0.66, F값 1.86, 유의확률 0.173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른 친밀감 형성의 차이는 의사소통 변수에서만 발견되었고 ( $p=0.000$ ). 신뢰와 소외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정체감 형성 정도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와 성별의 상호작용

조절변수	종속변수	자승합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자아정체감 * 성별	의사소통	0.11	1	0.53	0.465
	신뢰	0.19	1	0.76	0.384
	소외	3.570E-5	1	0.00	0.992

\*p<.05, \*\*p<0.01, \*\*\*p<0.001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에서 자승합 0.11, F값 0.53, 유의확률 0.465로 나타났다. 신뢰에서는 자승합 0.19, F값 0.76, 유의확률 0.384로 나타났다. 또한, 소외에서는 자승합 3.570E-5, F값 0.00, 유의확률 0.992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문제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 연구가설 2-1.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 연구가설 2-2.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 연구가설 2-3.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소외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 결과, 자아정체감의 형성 정도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연구가설 2-1, 2-2, 2-3을 기각한다.

## 제 6 장 논의 및 결론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개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영향에서 성차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발현성인기란 선진산업국가의 초혼 연령의 상승, 고학력자의 증가로 인한 취업 연령 상승, 여성인권의 향상과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탄생된 용어이다. 발현성인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있는 이행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8세에서 30세까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발현성인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자아정체감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관계 위축 등 발현성인기에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의 특성이 혼재된 발현성인기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별이 두 변수 사이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자아정체감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간의 관계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였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의 수행 여부와 정도는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

정에서 성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과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은 점성적 발달 원칙에 근거하여 이후 생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 수행은 이후의 발달과업 수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련 정책에서 이 시기 청년층에 대한 논의와 지원책은 여전히 미비하여, 발현성인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 형성에 주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가? 이러한 두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및 관련 이론,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개인과 사회적 환경 차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의 7차패널(2016) 자료를 독립표본 t-test와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자아정체감의 형성 정도가 본 연구에서 친밀감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의사소통, 신뢰, 소외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본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별 변수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친밀감의 각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연구문제 1인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설은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는 의사소통, 신뢰, 소외에 영향을 줄 것이다.’였다. 그 결과, 자아정체감은 의사소통과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p=0.000$ ). 또한, 소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0$ ). 이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과 점성적 발달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연구문제 2인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 형성에 주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가?’에 대한 연구가설은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 형성에 주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였다. Erikson(1964) 이후 Gilligan(1979, 1982a, 1982b) 등의 학자들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의 성차에 대해 논하였다. 남성은 자아정체감이 발달된 뒤 친밀감이 발달하는 반면, 여성은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이 선후관계 없이 동시에 발달한다는 것이 이후 학자들의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가 혼재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발현성인기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발현성인기의 성별에 따라 친밀감의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0$ ). 그러나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의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 신뢰, 소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자아정체감과 성별의 상호작용 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 두 번째 연구질문의 가설은 기각하였다.

앞서 Arnett(2000)은 발현성인기라는 개념의 출현 배경 중 하나로 활발한 여성운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여성 인권의 상승을 지적한 바가 있다. Gilligan과 같은 학자들이 발달과정에서의 성차를 활발히 논의한 시대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로, 2020년인 현재와 약 4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여성 인권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만족스

러운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선행연구 자료로 활용한 논문들의 연구 시점으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난 2005년에는 우리나라 여성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였고, 현재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의 대학진학률보다 7.9%p 가량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9). 비록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유리천장,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등 고용시장에서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성평등 관점에서 자아나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고용 환경이 발달과업에서의 성차가 연구되던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발달과업 성차 관련 1970~80년대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후 친밀감을 형성한다. 반면 여성은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을 동시에 형성하며 여성이 보다 관계지향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즉 남성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자아상,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를 성취를 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만족감이 남성의 형성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나가고, 정서적 친밀감이 여성의 형성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나 삶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정체감 척도의 문항과 앞서 언급한 발현성인기의 출현 배경으로 미루어보아, 과거에 비해 변화한 자신의 삶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인 태도가 발달과업에서의 성차를 줄인 요인으로 해석된다.

##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성차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발현성인기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진산업국가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Erikson이 주장했던 기존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현대의 청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주장하는 연령 기준을 현대의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 시기의 청년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무수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현대에 유용하게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과 애착이론의 연관성을 제시함으로써 박아청(2010) 등이 후속연구로 제안하였던 친밀감의 하위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앞선 제 2장에서는 Erikson(1968)이 말하는 친밀감, 특히 여성의 친밀감을 로맨틱한 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주변인과의 친밀감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한 바 있다(박아청, 2010).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과의 친밀감이 로맨틱한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선행한다는 가정 하에 주변인과의 친밀감을 발현성인기의 친밀감으로 정의하여 자아정체감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Erikson(1968)이 제시한 넓은 영역의 친밀감을 보다 구체화시켜 이전 발달과업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애착이론과 Erikson

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자아정체감이 친밀감의 세 가지 하위 요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단순히 ‘대인관계의 원만함 정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사회복지학적 논의를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아정체감은 친밀감 형성에 필요한 의사소통, 친밀감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소인 신뢰, 소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를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론적 함의

발현성인기 청년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정도가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본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발달과업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였다. 국내에는 Erikson이 주장했던 이전 발달과업이 다음 발달과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아청, 2010). 본 연구를 통하여 각 발달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발달과업이 점성적 발달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 단계의 발달과업에 영향을 미침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를 통하여 발현성인기의 청년에게 성별에 상관 없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상반된 논의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여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서 우리나라

에서 진행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차에 대해서 인지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발달과업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선행연구들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달과업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과업과의 관계와 성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발현청소년기의 청년들에게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형성 정도가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2. 실천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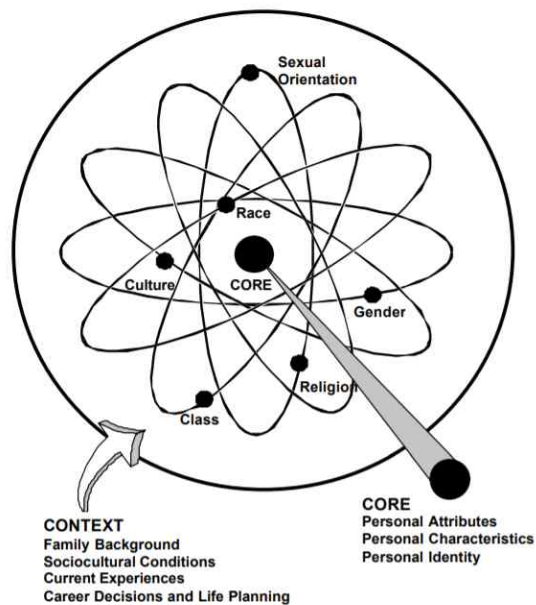
발현성인기에서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에 대해 알아본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친밀감을 주변인과의 친밀감으로 구체화하여 가정했을 때 자아정체감이 친밀감 형성 발달과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과 관계없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발현성인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개입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아정체감 형성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발현성인기 청년들에게 사회복지학적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라, 성별 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자아정체감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MMDI(Model of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와 같은 정체감 모델을 학교사회복지와 대학내 프로그램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rikson은 사회적 문맥과 더불어 점성적 원칙 혹은 ‘ground plan’에



의해 정체성이 발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Erikson, 1959). Jones(1995)는 여성인 대학생들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면서, 위와 같은 Erikson의 이론을 근거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들에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Jones와 McEwen(2000)은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MMDI(Model of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모델을 제안하였다. Jones와 McEwen(2000)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은 개인의 특성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 외에도 인종, 문화, 성별, 종교 등 다양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형성된다. 그러므로 발현성인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 개인적인 요소와 함께 사회적, 환경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MMDI 모델의 모형은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Jones & McEwen(2000)의  
Model of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자아정체감 형성 시 주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다. 여성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Jones(1995)의 관심을 토대로, 현재 학계에서는 정체감 형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Jones, S., & Abes, E. (2013)는 이와 같은 다차원적 접근은 대학생을 비롯하여 이미 사회적 연령이 성인에 도달한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을 용이하게 하며, 인종과 성별, 퀴어 이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MMPI와 같은 정체성 모델을 대학교육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학문을 익힐 시 보다 비판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고, 다양한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한 리더십을 향상시키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며 정체성 모델을 적용한 대학교육을 권장하고 있다(Jones, S., & Abes, E., 2013: 225-228). 그러므로 중·고등학생과 발현성인기 청년들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개입 시, 이질적 성격을 보이는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모집하여 자아정체감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정체감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사소통 영역에서 성차가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의사소통 문항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의사소통 평균 점수가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에 비해 낮은 남성의 의사소통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여 사회복지학적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을 측정된 문항들은 대인관계 기술이나 패턴에 관한 문항들이다<sup>12)</sup>. 그러므로 의사소통 영역의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기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사회복지학적 개

---

12) <표 5> 참조.

입 지점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현성인기 청년들에게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을 공통적으로 하되, 의사소통 영역에서 성차가 드러나는 부분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아정체감 형성과 의사소통 기술 증진을 위하여, 앞선 논의와 같이 학교사회복지나 대학 내에서 진행되는 대학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과 발현성인기 청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아정체감 형성과 의사소통 기술 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간관계훈련’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인간관계훈련이란, 자신과 타인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지각력을 향상시키는 집단 훈련 프로그램을 말한다. 인간관계훈련은 인간의 잠재력 개발과 자기노출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간관계훈련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자기노출을 도와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나아가 인간관계를 증진시키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이광자, 1985). 타인이 나에게 대해 알 수 있도록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인간관계훈련에서의 주요 개념인 ‘자기노출’을 위해, 인간은 자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선행하게 된다. 자기노출 전 자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노출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사소통기술이 향상되며, 나아가 친밀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를 통하여 발현성인기의 청년들에 대한 정신건강 정책 개발 시 자아정체감 형성 지원을 촉진하는 정책 개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발현성인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발현성인기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긍정발달을 위해서는 발현성인기에

자아정체감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발현성인기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 개발 시 자아정체감 형성 지원의 타당함과 구체적 정책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이론 검토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혼란은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발현성인기의 청년들에게도 Erikson이 주장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와 점성적 발달 원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현성인기 청년들에게도 타당성이 입증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이 시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의 과도기에 있는 우리나라 발현성인기의 청년들은 정신건강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대 청년에 대한 각 부처 별 심리·정서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취업자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지원, 취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이를 해석하면, 정부는 20대 청년들을 취업이라는 정적인 기준집단 대상을 중심으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6년에 관계부처 합동에서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중 생애주기에 맞춘 정신건강 지원책에 따르면, 청년과 장년을 한 분류로 묶어 정신건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17). 정신건강 종합대책에서는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학 상담센터와 의무실의 정신건강 지원 역량 강화 및 지역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내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을 지원책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대학에 다니지 않는 지역사회 내 청년이 사각지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 다니지 않는 지역사회의 청년들

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확충될 필요성이 있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기반을 둔 본 연구를 통해, 취업이나 대학 진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논의, 특히 자아정체감 형성 지원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자아정체감 관련 교육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서도 MMIDI를 비롯한 정체감 모델을 반영한 교육 방법 개발, 교육공학적 접근 등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정신건강 정책은 대학생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공립대학이나 지역거점대학, 지자체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MMIDI와 같은 정체감 모델을 반영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발현성인기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 형성 관련 정신건강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신건강정책의 사각지대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기반을 두고 발현성인기 청년들의 발달 문제를 살펴본 본 연구를 통해 생애주기별 개입에서의 연속성 강화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동적인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한 발달단계에서 다음 발달단계로의 이행기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에서도 생애주기별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특정 발달단계로의 이행기에 대한 언급은 적은 편이다. 발현성인기라는 개념을 제시한 Arnett(2000)의 말처럼, 인간은 어느 순간이나 특정 연령이 되면 성

인의 지위를 ‘마법처럼’ 한 순간에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생애주기별 개입 시 기존의 논의와 같이 인간의 생애를 범주화 하되, 본 연구와 같이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이행되는 전환기 시점에 필요한 정신건강사회복지 정책 지원 방안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생애주기별 개입의 연속성을 보다 견고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때 나타날 수 있는 성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의 한계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을 친구, 가족 등 주변인과의 친밀감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Erikson이 주장한 친밀감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앞선 제2절에서는 친밀감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친밀감의 두 가지 차원 중 한 가지 차원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Erikson이 주장하였던 친밀감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제기인 ‘사회적 관계의 축소’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친밀감이 Erikson이 주장한 친밀감을 온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자아정체감을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 집단과 평균 미만 집단으로 나눈 것에 대한 통계적 한계이다. 복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MANC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문항의 점수를 두 집단으로 나눌 시 잃어버리는 정보량이 많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균 미만 집단에 속한 1.75의 패널 A와 2.40의 패널 B가 변수 차원에서 의미하는 자아정체감 값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패널 A와 B 간 발생하는 점수 차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어려웠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제외하고 모형에 사용된 모든 변수를 문항 점수의 합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문항마다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관련한 세 문항이 있다. 세 문항이 의사소통 변수를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정도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문항 별로 각 변수를 설명하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통계적인 한계가 발생하였다.

네 번째로, 연구 결과 의사소통 점수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었으나 신뢰와 소외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규명이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7차년도(2016)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7차년도 데이터의 패널의 절대 다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인구이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패널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 환경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 혹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과가 여성 청소년들이 남성 청소년들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정체감 형성을 보이는 양상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한 성차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Giligan, 1979; Thorbecke & Grotevant, 1982).

다섯 번째로, 본 연구는 횡단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발현성인기에 해당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18~30세 인구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발현성인기 전체의 특징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발현성인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해석하고, 성인기로 진입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기 개입 방안 혹은 정책적 개입 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로맨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밀감에 대한 변수를 확보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상의 한계로 인하여 로맨틱한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주변인과의 친밀감이 로맨틱한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선행한다고 가정한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만약 이 변수가 확보된다면 Erikson이 주장한 친밀감에 대한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발현성인기에서 자아정체감과 두 차원의 친밀감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델 등을 통한 통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을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 소실, 문항을 총 합의 평균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가중치 문제라는 통계적 한계가 발생하였다. 연속변수인 독립변수와 여러 개의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통계적 데이터 소실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항 간의 가중치를 고려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정교한 문항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발현성인기의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벗어난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 환경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모델을 설정하였으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신뢰와 소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어려웠다. 발현성인기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한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종단연구나 다양한 연령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발현성

인기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자인 7차년도 패널 역시 발현성인기에 해당하나, 이 집단이 발현성인기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반영한 후속연구를 위해서, 우선 발현성인기를 한국에서는 몇 세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Arnett(2000)은 18세에서 25세까지를 발현성인기로 보았으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30세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발현성인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 조작적 정의에 따른 연령에 부합하는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만약 다양한 연령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종단연구가 가능하다면, 발현성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해 발현성인기에 나타나는 발달과정 상의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4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Arnett(2000)이 주장한 발현성인기 청년들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과 Bowlby 및 후속 학자들의 애착이론 간의 이론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친밀감을 주변인과의 친밀감과 로맨틱한 관계에서의 친밀감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청년 정신건강 악화라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을 주변인과의 친밀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주변인과의 친밀감을 의사소통, 신뢰, 소외라는 세 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의 7차년도(2016)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선 발현성인기의 자아정체감이 친밀감의 각 하위요소인 의사소통, 신뢰, 소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정체감은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 점수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의사소통 점수가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감이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자아정체감이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의 과도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발현성인기 청년에게도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성차가 발생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모든 성별에게 자아정체감 형성 지원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효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 국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책에서 자아정체감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련 연구나 정책에서 발현성인기 청년층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학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발현성인기 청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책과 사회복지학적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상경.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나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의료통계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연령대별 많이 나타나는 정신건강 질환은?.
- 관계부처합동 (2016).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 권재원. (2015). 중2병이 아니라 중학교병. 우리교육, 26-27.
- 김성운. (2014). 당신들의 질병, 중2병. 우리교육, 90-97.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  
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97.
- 도금혜. (2008).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33-150.
- 민하영 (2008).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중고교 청소년의 소외감  
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105-1114.
- 박선영. (2008). 사회복지실천교육에서 젠더 이슈와 교육적 함의. 젠더와 문  
화, (1), 187-218.
- 박아청. (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 박아청. (1994). Marcia의 아이덴티티 지위면접을 활용한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1), 167-185.
- 박아청 (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 박아청. (2010). 에릭슨의 인간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서석연. (1988). 3. 괴테와 그 시대 : 질풍노도시대의 괴테의 서정시 연구.  
괴테연구, 3(0), 189-213.
- 서연주. (2019). N포세대의 감정 풍속도. 대중서사연구, 25(1), 55-85.
- 석주영, 박인전. (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예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

- 계에 미치는 영향-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4(2), 29-50.
- 선민영. (2018). 대2병에 시달리는 대학생들. 월간 샐터, 96-96.
- 송지원, 이주리 (2018). 성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1), 45-57.
- 송현옥. (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민석 의원실. (2016). 2015년 학적 변동 대학생 수.
- 양지웅 (2014). 청소년 자아정체감 지위의 성별 간 및 학년 간 비교. 교육문화연구, 20(2), 83-110.
- 오은화.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105-123.
- 오인수, 손지향, 조유경. (2018).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대학생들의 대2병 경험 분석 연구. 교육과학연구, 49(2), 27-58.
- 윤경희, 이숙. (2016). 중학생의 기질 및 애정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7): 59-78.
- 윤나리, 김영란. (2004). 우리나라 청소년의 소외감과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2), 101-113.
- 윤미경 (1999).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 (1985). 인간관계훈련 전후의 자기노출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5(3), 31-38
- 이명희. (2013). “[한마당-이명희] 중2병”,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986844>
- 이정국 (2016). “2030세대 2명 중 1명 “나는 나홀로족”.”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9227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92274)
- 이현지, 김명희. (200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무망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243-264.
- 장휘숙. (2005).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된 변인들-성별, 연령, 신체적 성숙수준, 주관적 연령,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18(1), 97-113.
- 장휘숙, 정운경. (2005). 청소년들의 생물학적 연령과 주관적 연령이 그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1), 94-95.
- 정수남, 권영인, 박진, 은기수 (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문화와 사회, 12, 35-103.
- 정옥분. (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 & 황현주. (2009).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조아현, 장선우, 김남명, 임소연, 스킨키 마오. (2018). 대학생 나홀로족의 관계맺기(networking)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03-317.
- 주은지. (201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낭만 애착. 청소년학연구, 18(4), 141-171.
- 최순영. (2003). 인간의 사회·성격 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최윤아. (2014). “待機(대기)만 3개월...취업만큼 힘든 ‘대학생 고민상담’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7/2014030700240.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7/2014030700240.html)
- 통계청. (2019). 2018년 혼인 이혼 통계.
- 통계청. (2019).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하경희. (2017). 학생정신건강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5(3), 64-9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7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1-101.
- 홍강의 외. (2014). 소아정신의학. 서울: 학지사.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rcher, S. L. (1982). The lower age boundaries of ident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6), 1551-1556.
- Archer, S. L. (1989). Gender differences in identity development: Issues of process, domain and timing. *Journal of Adolescence*. 12. 117-138.
- Allen, J.,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and P.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19-355). New York: Guilford.
- Armsden, G., & Greenberg, C.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2009). 애착 (김창대, 옮김). 파주: 나남. (원서출판 1982).
- Brandell, J., & Ringel, S. (2007). *Attachment and Dynamic Practice : An Integrative Guide for Social Workers and Other Clinici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retherton, I. (1991). The roots and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London: Roltledge.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Press.
- Cashdan, S. (1988). *Object Relations Therapy: Using the Relationship*. New York: Norton.
- Craik, K. (1943). *The Nature of Expla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aig-Bray, L., Adams, G. R., & Dobson, W. R. (1988). Identity formation and social relations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7(2), 173-187.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 56-121.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No.1,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63). *Youth: Change and challenge*. New York: Doubleday.
- Erikson, E. H. (1964). *Inner and Outer Space: Reflections on Womanhood*. Daedalus, 93(2), 582-606.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Teyber, E., & McClure, F. H. (2013). 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접근 (장미경 외 옮김). 서울: 센케이저러닝코리아. (원서출판 2010).
- Flammer, A. (2009). *Entwicklungstheorien: Psychologische Theorien Der Menschlichen Entwicklung*. Bern: Huber.
- Furlong, Andy & Cartmel, Fred. (2007). *Young People and Social Change*. Berkshire: Open Univ. Press.
- Fussell, E., Gauthier, A., & Evans, H. (2007). Heterogeneity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Cases of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 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23(3-4), 389-414.

- Gujarati, D. N., & Porter, D. C. (2010). *Essentials of econometrics (4th ed.)*. New York: McGraw-Hill/Irwin.
- Gilligan, C. (1979). Woman's place in man's life cycle. *Harvard Educational Review*, 49, 431-446.
- Gilligan, C. (1982a).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1982b).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s of the self and of mor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ll, G. S. (1904).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Vol. 2). D. 73-75. New York: Appleton.
- Hartup, W. W., & Overhauser, S. (1991). Friendships. In R. M. Lerner, A. C. Petersen, & J. Brooks-Gunn(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Vol. 1)*. New York : Garland.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5). Medical treatment statistics data. Retrieved Jan, 29, 2018, from <http://newsjelly.seoul.co.kr>
- Hodgson, J. W., & Fischer, J. L. (1979). Sex differences in identity and intimacy development in college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37-50.
- Holcomb-McCoy, C. (204). Alenation: A comcept for understanding low-income, urban clients.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3, 188-196.
- Holmes, J. (2005). 존 불비와 애착이론 (이경숙 외 옮김).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3).
- Jones, S. R. (1995). Voice of identity and difference: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college student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Jones, S., & Abes, E. (2013). Identity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

- Advancing Frameworks for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 Susan R. Jones, Elisa S. Abes ; Foreword by Marcia B. Baxter Magolda.
- Jones, S. R., & McEwen, M. K. (2000). A conceptual model of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 405-414.
- Lewis, M., & Rosenblum, M. A. (1975).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New York: Wiley.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Ochse, R., & Plug, C. (1986).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the validity of Erikson's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40-1252.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Orlofsky, J. L., Marcia, J. E., & Lesser, I. M. (1973). Ego identity status and the intimacy versus isolation crisi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7*(2), 211-219.
- Pao, Jean Yun (1996),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associations with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 Slavin, J. (1996). Readiness for psychoanalytic treatment in late adolescence: Developmental and adaptive considerations. *Psychoanalytic psychology, 13*(1), 35-51.
- Slavin, M., & Kriegman, D. (1992). *The adaptive design of the human psyche: Psychoanalysis, evolutionary biology, and the therapeutic process*. New York: Guilford.
- Thorbecke, W. & Grotevant, H.D. (1982).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Interpersonal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6). 479-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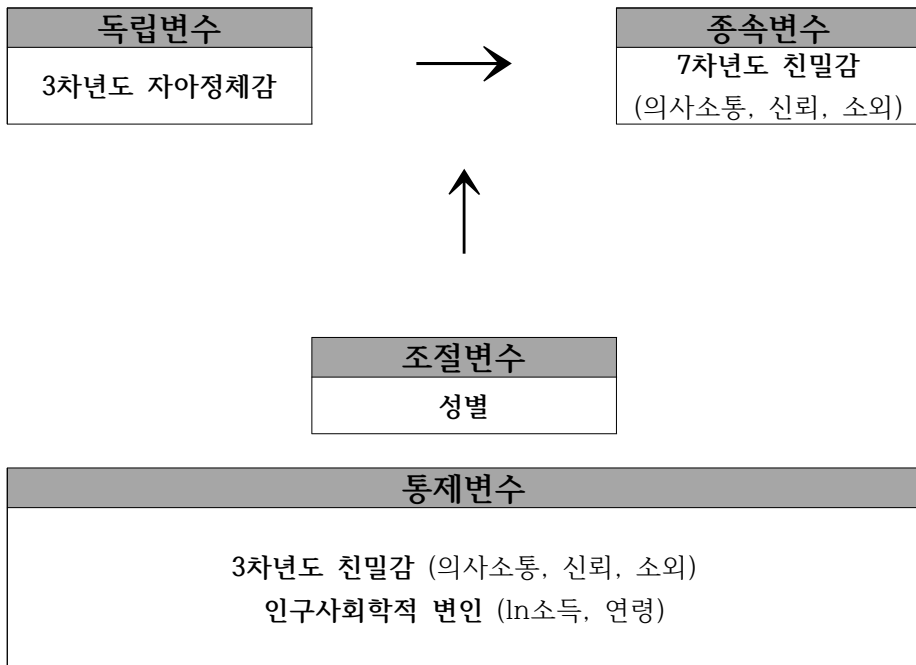
Wallin, D. J. (2010). 애착과 심리치료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오희김)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7).

Yon, D. (2000). *Elusive culture: Schooling, race, and identity in global time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부 록

앞서 제 2장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의 중1패널 7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점성적 발달 이론에 근거한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과 데이터 처리 등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부록에서는 중1패널 3차년도 자료(2012)와 7차년도 자료(2016)를 분석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이 활발히 형성되고 있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로 전환하는 기점(transition period)인 발현성인기의 발달과업 간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3차년도와 7차년도의 발달과업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3차년도와 7차년도 변수를 이용한  
MANCOVA 분석의 모수추정치

변수	7차년도 의사소통		7차년도 신뢰		7차년도 소외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절편	2.52	5.04***	2.89	5.24***	1.51	2.24**
자아정체감 평균 미만(0)	-0.09	-2.97**	-0.09	-2.57*	0.05	1.28
성별(남성, 0)	-0.08	-2.24*	-0.01	-0.34	0.00	0.07
자아정체감 평균 미만(0) * 성별 (남성, 0)	0.04	1.01	0.02	0.43	-0.04	-0.70
3차년도 의사소통	0.11	3.50***	0.08	2.51*	-0.01	-0.27
3차년도 신뢰	0.13	4.35***	0.14	4.45***	-0.11	-2.89**
3차년도 소외	-0.03	-1.62	-0.03	-1.75	0.13	6.30***
ln소득	0.02	0.87	-0.03	-1.22	0.04	1.76
연령	0.00	-0.14	0.00	-0.01	0.00	0.33

\*p<.05, \*\*p<0.01, \*\*\*p<0.001

앞선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3차년도의 자아정체감은 7차년도의 의사소통과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3차년도의 자아정체감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선 연구결과

와 달리, 3차년도의 자아정체감과 7차년도 소외 사이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은 발현성인기의 대인관계 양상을 나타내는 또래애착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은 발현성인기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부분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Zusammenfassung

**Einfluss der Selbstidentität  
des emerging adulthood auf die Intimität**  
:Betonung auf geschlechtsspezifische Unterschiede

Cho, Young-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ese Arbeit untersucht die Beziehung zwischen Selbstidentität und Intimität, den Hauptentwicklungsaufgaben der emerging adulthood, die der Ausgangspunkt für die psychische Gesundheit von Erwachsenen ist. Auf dieser Grundlage kann die Bedeutung dieser Arbeit darin gesehen werden, die Wichtigkeit der emerging adulthood als Ausgangspunkt für die psychische Gesundheit von Erwachsenen zu bestätigen.

Heutzutage verzögert sich der Prozess, in dem sich junge Menschen von Jugendlichen und dem frühen Erwachsenenalter zu unabhängigen Mitgliedern der Gesellschaft entwickeln aufgrund der soziokulturellen und wirtschaftlichen Veränderungen in den fortgeschrittenen Industrieländern. Die akademische Welt definiert diese Periode als emerging adulthood. Da psychische



Gesundheitsprobleme der emerging adulthood Aufmerksamkeit erregen, besteht in dieser Zeit ein Diskussions- und Interventionsbedarf für die Entwicklung und Entwicklungsaufgaben. Das liegt daran, dass psychische Gesundheitsprobleme während der emerging adulthood einen direkten Einfluss auf die psychische Gesundheit und die Entwicklungsaufgaben des späteren Lebens nach den epigenetischen Prinzipien haben können. Allerdings reichen inländische Studien zu den Entwicklungsaufgaben dieser Zeit noch nicht aus.

In den USA wurde in den 1980er Jahren aktiv Forschung über Entwicklungsaufgaben zu geschlechtsspezifischen Unterschieden und Interventionen durchgeführt, die jedoch auch für Korea unzureichend waren. Daher zielt diese Studie darauf ab, auf der Grundlage empirischer Untersuchungen Implikationen für die Praxis der psychischen Gesundheit und des sozialen Wohlergehens abzuleiten, indem der Zusammenhang zwischen Entwicklungsaufgaben bei Jugendlichen und emerging adulthood untersucht wird.

Diese Studie verwendete Daten aus dem 7. Jahr (2016) der KCYPS(koreanischen Kinder- und Jugendumfrage) und analysierte 1.689 Fälle. Für die Analyse wurde eine unabhängige T-Test Probe und MANCOVA verwendet.

Die Zusammenfassung der Studie ist wie folgt: Zunächst wurde festgestellt, dass sich die Auswirkung der Selbstidentität auf die Intimität positiv auf das statistisch signifikante Niveau auswirkt. Bei diesem Einfluss wurde jedoch kein geschlechtsspezifischer Unterschied festgestellt. Mit anderen Worten, es konnte bestätigt

werden, dass sich die Selbstidentität ungeachtet des Geschlechts positiv auf die Intimität auswirkt.

Diese Studie zeigt die Korrelation zwischen den Entwicklungsaufgaben von Eriksons psychosozialer Entwicklungstheorie und die Gültigkeit der Anwendung von Eriksons Theorie auf die emerging adulthood unabhängig vom Geschlecht. Das ist bedeutend, da in dieser Studie Maßnahmen der psychischen Gesundheit für Personen in der emerging adulthood mit Unterstützung der Selbstidentitätsformulierung diskutiert werden.

In dieser Studie scheinen jedoch, aufgrund eines Mangels an früheren Untersuchungen und Daten sowie an einer mangelnden operativen Definition der Intimität zwischen den von Erikson definierten Entwicklungsaufgaben und der fehlenden Längsschnittanalyse der Daten, Grenzen zu existieren. In dieser Studie beschränkt sich Intimität auf Intimität in sozialen Beziehungen, aber spätere Untersuchungen legen nahe, dass Erikson-definierte Intimität im Allgemeinen breiter behandelt wird, einschließlich Intimität in romantischen Beziehungen. Daher ist vorzuschlagen, dass empirische Analysen durch Längsschnittstudien durchgeführt werden, um Alterskriterien bezüglich der ausdrücklichen Popularität zu klären.

**Stichwort: emerging adulthood, Psychosoziale Entwicklungstheorie von Erikson, Entwicklungsaufgaben, Selbstidentität, Intimität, MANCOVA**

**Student-ID: 2017-23183**